

치유농장... 치유마을...치유카페... “치유농업 성지 만든다”

경북, 전국 첫 치유농업센터 유치

농진청 공모사업서 선정
내년부터 2년간 10억 투입
경북도농업기술원에 건립

경북도가 농업자원을 활용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센터를 유치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전국 1곳의 치유농업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근 경북도가 1위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치유농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건립될 이 시설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치유콘텐츠 개발, 치유효과 검증, 학교 및 보건기관과 치유농장의 1대 1 매칭 등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은 칠곡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가까이 있어 치유농업 접목이 쉽고 도시고속철도 3호선도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0여만 인구가 산주하고 있어 도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농업체험을 하는 도시 어린이들.

/경북도청

이곳에는 치유과학실, 교육장, 치유 카페 등이 있는 치유농업지원센터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실, 정원, 텃밭, 동물사육장 등 직영 치유농장이 들어선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의사, 한의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치유효과를 높이고 신규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인증 받아 치유농업 인력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007년부터 97곳의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해 곳당 연평균 4500만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유농장, 치유마을, 치유 카페 등 치유관련 사업 확장을 위해 2025년까지 70여억원을 투자해 치유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 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연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국민 치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산업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유치를 계기로 경북을 치유농업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경북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 5개 시범학교 적용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전기 고등학교 특별전형 해당학교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가운데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골라 온라인 시스템 원서접수를 하기로 했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 시범학교’는 마이스터고 가운데 구미 금오공고, 특성화고에서 계열별로 김천 경북과학기술

고, 구미 경북생활과학고, 경주정보고, 안동 한국생명과학고 등이다.교육청은 이들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범운영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검증한 후 다음달 16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모든 전기고 일반전형과 후기고등학교 전형에서 나이스 시스템은 물론 학생,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는 웹 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부산시립박물관, 신수유물 ‘기명절지도’ 전시

부산시립박물관이 2010년부터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는 ‘신수유물 소개전’의 올해 마지막 전시를 시립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에서 13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명절지도(사진)’는 중국의 고동기(고대 제사에 쓰이던 청동으로 만든 제기)나 진귀한



도자기에 꽃가지·과일·채소 등을 곁들인 일종의 정물화다. /부산=허의원 기자

여수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여수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3개 사업에 9억 2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66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

직한 신중년(5060세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내년 3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행정·홍보·마케팅 등 관련 경력 5년 이상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여수(전남)=김용화 기자 jjacecom@

전남농협, 쌀 수확 앞두고 수급 동향 등 논의

쌀 수확기 업무협의회 진행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13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RPC 협의회(협의회장 양용호(금성농협조합장)) 및 광주전남 벼 매입농협 조합장 50여명, 농협경제지주 최선식 양곡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쌀 수확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서 농협경제지주 최선식 부장으로 부터 2020년 벼 수확기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올해 8~9월의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 3번의 태풍으로 생산량 및 쌀값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때 ▲가격결정 시 사후정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13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RPC 협의회 및 광주전남 벼 매입농협 조합장 50여 명, 농협경제지주 최선식 양곡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쌀 수확기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제 활용 ▲농협간 벼 거래확대 등 수확기 중점추진사항과 ▲2020년 공공비축미곡매입요령 중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은 쌀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큰 만큼 농가에서 수매요청 전량을 수매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친환경 비대면 캠페인 펼쳐

부산시가 10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로 줍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제1회 비대면 줍깅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전남 산업 R&D 지원 전국 최하위”

송갑석 의원 “전체 예산의 1% 수준”

호남 지역에 지원된 산업기술 R&D 예산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 지원된 예산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저조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KEIT의 산업기술 R&D 예산 7조1845억원 중 호남권에는 3.4%에 불과한 2441억원이 지원됐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672억원, 490억원으로 0.9%와 0.6%를 기록하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나란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는 5년간 총 3조6283억원으로 연평균 전국 산업기술 R&D 예산의 50.5%가 투입됐으며, 영남권 26.6%, 충청권 18.2%, 강원·제주 1.2% 순으로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산업기술 R&D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 전담기관인 KEIT가 수행기관 선정,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상주시 ‘보물단지TF’ 행안부서 적극 행정 인정

상주시는 시의 각종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보물단지TF’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으로 선정됐다.

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8월 셋째 주에서 9월 넷째 주 사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사례 중 김천 보물단지TF를 적극행정 맛집으로 뽑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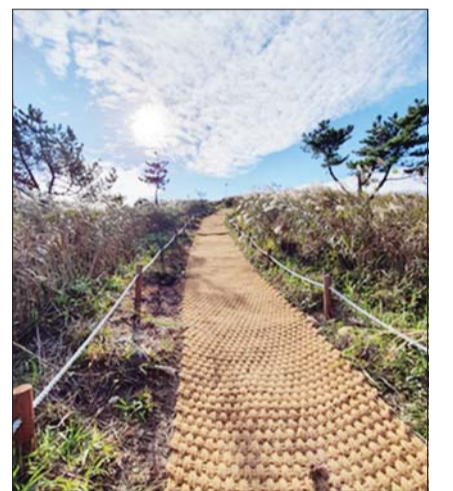
13일 밝혔다.

보물단지TF는 20~30대 직원이 주로 참여해 새로운 시각으로 상주시의 각종 시설물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과 시정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장흥군 “안전하고 쾌적해진 천관산 역사능선 오세요”

장흥군은 천관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쾌적한 산행과 안전을 위해 역사능선 등산로(사진) 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탐방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위험구간에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했다.환희대~연대봉(L=900m) 구간은 산죽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역사 식생환경을 돕기 위해 벌채(5.15ha)를 실시했으며, 어린 나무 가꾸기(15.77ha), 노후 된 보행패트 교체 등을 실시해 탐방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장흥(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



전남도의회 섬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추진

전남도의회가 도서지역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신안1)이 전남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까지 운송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 외 종합소

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주체는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이며,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선언적·관공적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남=양수영 기자